

인도시장 커진다… K-수출, 산업재 넘어 소비재까지 ‘확장’

코트라, 對인도 수출 168억달러 집계
전년보다 30.8% 늘어 고성장 지속
반도체·석화·기계 등 산업재 견인
라면·화장품 등 한류 소비재 약진
2030년 교역 500억달러 달성 속도

우리나라의 대(對) 인도 수출이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한국 경제의 새로운 효자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4월 정상외교를 계기로 양국 정상에서 발표된 ‘2030년 한-인도 교역 500억 달러 달성’ 목표를 향해 순항하는 모양새다.

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분석한 ‘2026년 한-인도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의 대인도 누적 수출액은 총 168억 달러로 전년 동기(128억 4000만 달러) 대비 30.8% 증가했다. 동기간 누적 수입액 역시 50억 3000만 달러로 16.2% 늘어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18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교역 확대의 강력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4월 대인도 수출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사 사옥.

/코트라

전년 동월 대비 41.9% 증가한 이후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며, 8월 당월 수출액은 23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15억 9000만 달러) 대비 47.3%나 늘어나며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 **印 ‘메이크 인 인디아’ 수요와 韓 첨단 소부장 기술력 결합**

이번 수출 폭증의 핵심 동인은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와 AI·데이터센터·인프라 등 신산업 확충 정책에 있다. 인도가

글로벌 생산기지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의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이 현지 공급망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분석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재가 수출 성장을 견인했다. 단일 최대 수출품으로 떠오른 반도체는 8월 중(1~25일 기준) 6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77.5% 급증했다.

인도 제조업의 기초 원료 및 설비 고도

화 수요가 몰리면서 석유화학(3억 2000만 달러, +31.4%)과 일반기계(1억 5000만 달러, +16.5%)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이 밖에도 배터리, 정밀소재, 철강·금속 등 주요 산업재 제품 역시 인도 현지의 인프라 확충과 맞물려 수요가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면 54%·화장품 19% ↑ … 한류 소비재로 수출 다변화**

산업재뿐만 아니라 K-푸드와 K-뷰티를 위시한 한류 소비재의 약진도 눈에 띈다. 올해 7월 누적 기준 라면 등 면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4.7% 증가했으며, 화장품으로 대표되는 K-뷰티 제품 수출도 19.2% 늘었다. 중산층 확대로 소비 여력이 커진 인도 시장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실제 제품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트라는 이 같은 수출 상승세를 몰아 ‘2030년 한-인도 교역 500억 달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수출 및 해외진출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난 4월 정상외교 후속 조치로 가속화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바탕으로 공급망 및 산업

협력 기반을 한층 다진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9월 중순 뉴델리에서 열리는 ‘세미콘 인디아’와 연계해 ‘한-인도 반도체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한다.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반도체미션(ISM)’에 발맞춰 국내 소부장 기업 15개사가 타타, 마이크로 등 현지 앵커기업과 만나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한다.

아울러 소비재 진출을 위해 인도 현지 1위 유통기업인 ‘틸라이언스’와의 대형 판촉전을 연내 추진하고, 오는 12월 뭄바이에서 열리는 코스모프로프 전시회에 K-뷰티관을 운영하는 등 인도 유통망 공략을 본격화한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8월까지 대인도 수출이 30% 이상 급증한 것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기 속에서 거대 시장의 기회가 본격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정상 외교 후속 성과를 극대화하고 소부장부터 소비재까지 인도 수출·해외진출을 다변화해 ‘2030년 한-인도 교역 500억 달러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AI 시대 韓 에너지정책 미래 해법 모색

에경연 40주년 정책세미나
IEA 사무총장 기조연설
에너지안보·전력망 논의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아 오는 17일 서울 옐타워에서 ‘에너지·기후·변영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와 기후변화 정책 변동,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폭증 등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환경 속에서 한국의 미래 에너지 정책 방향과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오후 기념세션에서는 파티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이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의 기념사와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환영사에 이어 이희성 초대원장, 우원식 국회의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축사가 진행된다.

학술 세션은 총 2개로 나뉘어 진행된다. 오전 세션에서는 ‘지정학, 기후,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주제로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공급망 위기 속 에너지 안보 과제를 점검한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일본에너지경제연구원(IEEJ)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 등이 발표 및 토론자로 나선다.

오후 세션에서는 ‘회복력 있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AI 시대의 전력망 혁신, 계통 유연성 확보, 원전·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의 조화로운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의 진행으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BloombergNEF 등 국내외 기관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은다.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연구원의 지난 40년을 기념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에너지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나 사전등록은 10일 오후 6시까지 행사 안내문의 사전등록 링크(https://event-us.kr/keeixenergy/event/132879) 또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행사장 수용인원 제한으로 사전등록자에 우선 입장 기회가 제공되며, 행사에는 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노사발전재단, AI 캐릭터 ‘로사’ 공개

국민이 생성형 AI 활용해 직접 제작
노사상생 의미 담아 홍보 콘텐츠 활용

노사발전재단을 상징하는 새 캐릭터 ‘로사’(Rosa)가 향후 기관의 각종 홍보활동에 투입된다. 노사발전재단은 ‘2026년 AI(인공지능) 활용 캐릭터 공모전’을 통해 대상 1점·우수상 50점 등 총 51개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직접 제작한 작품들이 경합을 벌였다.

이 공모전은 재단의 주요 사업을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별도의 그림 실력이 없어도 생성형 AI 도구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점이 대중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재단은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접수된 응모작들은 1차 적격 심사와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2차 심사를 거쳤다. 창의

성과 상징성,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51점을 선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캐릭터 이름은 재단 직원들의 작명 투표를 거쳐 ‘로사’라는 공식 명칭으로 최종 확정됐다. 로사는 노동자의 로(勞)와 사용자의 사(使)를 합친 이름으로, 노사상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사무총장과 온누리상품권 40만 원을, 우수상 수상자 50명에게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지급한다. 당선자 명단은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단은 향후 선정된 캐릭터 로시를 재단 누리집과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물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국민이 AI를 활용해 직접 만들어 준 캐릭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새로운 얼굴인 ‘로사’를 재단의 사업을 국민에게 더 가깝게 전하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아세안 농업 메탄 감축에 한국 기술 투입

농어촌공사, 캄보디아 시범사업
논 262ha에 간헐적 관개 도입

한국농어촌공사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대상의 농업부문 메탄 감축 지원을 개시했다. 공사는 이들 국가의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 지원을 위해 저탄소 농업기술을 현지 벼농사 등에 전파한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며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협력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캄보디아에서 시작된다.

공사는 ‘한-아세안 메탄 감축 협력사업’의 첫 국가별 시범사업을 캄보디아에서 추진하고, 아세안 역내 농업부문 메탄 감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교부의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재원으로 아세안 국가의 메탄 감



캄보디아에서 ‘한-아세안 메탄감축 협력사업’ 관련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메탄 감축정책과 제도기반 조성 ▲메탄 배출 측정법 개선 ▲국가별 메탄 감축사업 개발·이행 등이다.

농어촌공사는, 협력사업의 총괄을 맡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를 비롯해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농업총국(GDA) 등과

함께 사업 시행기관으로 참여한다.

지난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올해 현지 타당성 조사와 시범사업 계약 등을 마쳤다. 1호 사업이 캄보디아 캄퐁툼에서 내년 5월까지 진행된다.

농업부문은 캄보디아 온실가스 배출량의 23%를 차지한다. 그중 하나가 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이다. 논에 물을 가두면 산소가 부족한 토양에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이 과정에서 메탄이 발생한다.

캄보디아는 메탄 감축을 위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3.0)’에 9만 헥타르(ha)의 논에 ‘간헐적 관개’를 적용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간헐적 관개는 논에 물을 댔다가 빼는 과정을 반복해 토양의 산소 조건을 조절하고 메탄 발생을 억제하는 저탄소 농업 방식이다.

공사는 캄퐁툼 지역 논 262ha에 저탄소 농업을 도입한다. 먼저 간헐적 관개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5극3특 성장엔진 본격화… 7대 지원책 가동

산업부, 중앙·지방 고위급 협의체 출범

‘5극3특(5대 메가시티·3대 특별자치도) 권역별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지방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중앙-지방 간 고위급 공식 협의체가 출범했다.

산업통상부는 7일 충북 오송 오스코에서 13개 지방정부 부단체장과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된 성장엔진 구상을 지방주도로 신속히 실행하기 위해 기존 실무협의회를 고위급 소통체계로 격상한 것이다.

이날 산업부는 지방정부의 성장엔진 투자이행을 지원할 ‘성장엔진 7대 정책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지원책은 재정, 세

제, 금융, 인재, 기술, 인프라, 제도 등 기업 투자의 전 과정을 망라한다.

구체적으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과 지역투자보조금 우대, 기업·근로자 대상 지방 우대세제 지원이 추진된다. 또한 국민성장펀드(40% 투자) 등 정책펀드 우대와 1조 원 규모의 성장엔진 우대보증기 제공된다. 기술·인프라 부문에서는 지역 자율형 R&D 및 제조 AX(AI 전환) 사업 최우선 지원과 함께 신규 첨단 국가산단, MAX 클러스터, RE100 산단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산업부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육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5극3특 권역별로 ‘성장엔진 초광역 공동사업단’을 가동해 현장 밀착형 사업을 발굴하도록 돕는다. /세종=한용수 기자